

한글대장경 완간 눈앞에

21세기와 역경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역경은, 21세기의 벽두에 들어서면서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새로운 세대와 사회환경에 발맞추는 디지털화된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경사업은 점점 더 불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사찰의 대형 건물 불사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역경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범불교적인 힘을 기울여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에 21세기 역경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진단하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사를 실는다.

- 1.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 2.역경원은 불교학의 견인차
- 3.디지털시대와 역경
- 4.역경사업 활성화 과제

64년 역경원 설립...경전 대중화 '앞장'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 전통문화 속에 용해돼 있는 불교사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국의 사상과 문화를 논하기 어렵다고. 따라서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과 전적들을 번역하는 일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온전히 복원하는 일이자 내일의 불교학을 꽃피우기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은 이같은 차원에서 시작됐다. 동국역경원은 운허스님의 주도로 64년 동국대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의 대중화 없이는 불교학의 흥성과 수행풍토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역경원은 설립 이듬해인 65년 김달진 역의 <잡아함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88권을 100여명이 넘는다. 67년 용주사에 설치된 역경연구원에서 공부한 무비스님, 통광스님, 등을 비롯 불교학 전공자와 한문에 능통한 사람들이 다수 참가했다. 여기에 역경원 편집부에서 제작을 맡고, 판매는 별도로 조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당초 동국역경원은 작년까지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번역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전 목록류의 번역 없이는 이미 번역 간행한 한글대장경을 활용할 수 없다는 교계의 여론에 따라 작년부터 사전목록류를 번역해 왔다. <한글대장경> 번역 외에도 역경원은 그동안 문고본 <현대 불교신서>와 <불교사전> 등을 발간했다.

설립 이후 역경원의 최대과제는 재정확보였다. 역경원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66년~77년까지 정부로부터 7천5백만을 지원받았다. 조계종총무원도 65년~69년 3백5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동국대는 65~71년 1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70년대 말까지 역경원은 매년 7~8권의 <한글대장경>을 번역 출간해 왔으나, 국고지원이 끊긴 80년대에는 거의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침체가 빠졌던 역경사업이 다시 재개된 것은 94년 개혁종단 이후다. 역경에 대한 범종단차원의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의 예산지원도 다시 이뤄져 재정난이 일정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94년~97년 4개년 계획으로 국가로부터 12억2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동국대와 조

계종총무원, 역경원위원회, 보덕학회 등의 지원과 <한글대장경> 판매금 등으로 약 20억의 자금을 확보했다. 94년 이후 역경원은 매년 26~30권, 한달 평균 2.7권을 출간하며 역경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1권의 <한글대장경>을 제작하는데 3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평균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역경사업은 여전히 재정적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지난 98년과 99년에도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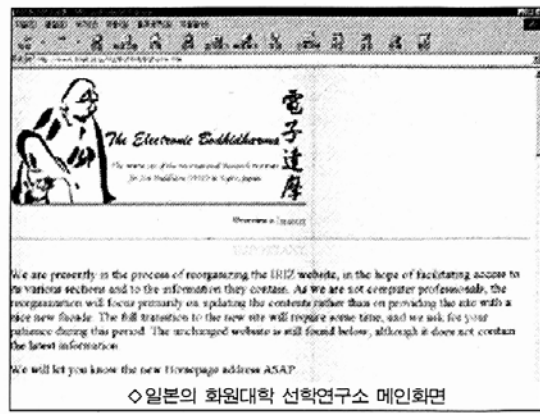
지금까지 역경사업 전체 경비 가운데 60% 이상이 정부 지원으로 충당됐다. 국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역경사업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녔기에 수십억에 이르는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역경원은 <한글대장경> 완간과 동시에 개정작업에 착수해 계획이다. 개정작업에는 <한글대장경> CD롬 제작을 비롯해 전산화 작업까지 포함된다.

역경원 최철환 부장은 "개정과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다"면서 "전산화작업은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와 협조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부와 입력작업 등 기초적인 작업부터 진행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경사업의 최대난제인 재정확보가 해결되지 않은채, 여전히 국가지원에 의존해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면 또다시 지난 36년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에 모든 불교도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일본불교 탐방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이곳의 불교 역시 국내 불자들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교계의 유혹을 가둔 70%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또 우리 나라와 같이 대장경 전산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화원대학교의 선학연구소는 고려 대장경연구소와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어 국제 학술회에서 자주 비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본불교계의 속내를 들여다 보고 싶은 불자 네 티즌이라면 '화원대학선학연구소' '정토진종 동본원사' '조동종 전국청년회' 등의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유익한 사이버 기행이 될 것이다.

불전 전산화 '공개'

▲화원대학선학연구소(<http://www.ijnet.or.jp/iriz>): 인터넷에 가장 많은 불교 텍스트를 올려 놓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이트가 바로 '화원대학 전자달미' 사이트이다.

일본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학교와 연구소에서 불교 문헌의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해 이 연구소에서는 활발하게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홍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이채롭다.

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선종관계 텍스트(JIS와 BIG5) △불전 전산화 현황 △선종 관계 예술 △선종 기관 관련 정보 △선종학에 관한 한 글 △선종식비이스(Zen Knowledge Base) 등이다.

'진종의 가르침' 불만

▲정토진종 동본원사(<http://tomo-net.or.jp>): 토모넷(TOMO-NET)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본원사(東本願寺)는 교토에 위치한 명찰로 일본 정토진

청년들 운영 사이트

▲조동종 전국청년회(<http://jvan.co.jp/~soto>): 지난해 말 한국불교계 대표적인 선 수행도량인 백양사를 방문한 이하시스님이 종정으로 있는 조동종은 임제종과 더불어 일본 선종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일본의 조동종은 도인선사를 개산조로 하는 영평사(永平寺)와 형산선사를 개산조로 하는 총지사(總持寺)를 양대본산으로 한다. 이 사이트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답게 주요 활동상황과 소식 등의 정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일본 청년불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리의 선행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조동종 이외에도 임제종이나 다른 종파의 활동 상황을 연이여 찾아볼 수도 있는 점도 이 사이트의 특징이다.

오중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업설-연기설 무아-윤회 '토론'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동계워크숍

12일~13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운영위원장 해주스님) 동계워크숍의 주제는 업설과 연기설,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실상사에서 열렸던 하계워크숍에서 미진했던 업설과 연기설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도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50여명의 불교분과 회원들은 여는 워크숍과는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종표교수(전남대)는 근본불교에서의 업설과 연기설의 관계에 대해 "생명(삶)은 업의 현상이다. 무아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연기설 업설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업설과 연기설을 모순된 사상으로 이해하여 업설을 이단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무아(anātman)와 윤회의 현대적 의미, 불교사상과 윤회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오온(五蘊)은 곧 무아다", "윤회는 연기법의 한 현상으로 연기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선불교에서 생사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바로 윤회다", "부처는

윤회를 업보상속으로 보았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종범스님은 "이번 워크숍은 확실한 결론을 얻기보다는 불교를 논의함에 있어 업과 연기, 무아, 윤회는 개별적 문제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지반 위에서 연구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업설과 연기설, 무아와 윤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회원 50여명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동계워크숍에서 자유롭게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은자 기자

"수행 뒤로 한 환경운동 전통불교와 거리있다"

신규탁 교수 동양철학회 세미나서 주장

환경보호의 대안사상으로 무소유의 불교정신이 정신적 바탕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불교환경단체들이 전개하는 환경운동은 전통불교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10일 중앙대서 열린 한국동양철학회 '새천년의 동양철학과 환경윤리' 주제 정기학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학술회에서 신규탁교수(연세대)는 '불교의 우주관과 환경윤리'라는 논고를 통해 "업장소멸을 뒤로 한 채로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전통적인 불교교학에서 보면 비본질적 내지는 주변적인 심지어는 반불교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교수는 전통적인 불교교학에서 우주와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국에서 편찬된 <경률이상(經律異相, 대정 53권)>을 토대로 설명했다.

신교수는 "고대 인도 불교인들은 중생이 짓는 업력에 의해 우주가 생주멸한다고 믿었으며, 우주가 파괴되는 원인을 번뇌에서 찾았다"면서 "인간의 탐심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자원 보호, 대기오염 방지 등과 같이 물질을 매개로 하는 환경운동이나 대사회적인 환경 캠페인은 전통적인 교학체계에서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같은 신교수의 주장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부장은 "업의 소멸없는 환경운동은 반불교적이라는 부분은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환경운동을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로 구분해 다르게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 또한 불교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26일 보조사상연구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이 중립의 <도사>연구를 주제로 제3차 선전연구 발표회를 26일 법륜사 불일문화회관에서 연다.

이날 발표회는 한국 선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선전(禪典)들을 연구하고, 재조명해봄으로써 21세기 한국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봉종말의 생애와 사상'(법산스님, 동국대 교수), '규봉종말의 선의 분류와 선종사 인식'(최병현, 서울대 교수), '도사의 선사상과 돈점관'(신규탁, 연세대 교수), '도사가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해주스님, 동국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또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권기종교수(동국대), 조운호씨(전남대 강사), 김영욱씨(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이 논평자로 참가한다. (02)733-5315

이은자 기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바라밀!
4×6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증세를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든 의미가 내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에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1.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2.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